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며

우리나라 재래시장은 1,695개의 시장과 23만개의 점포에 30만명의 상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에는 상설시장 19개소에 점포수 2,628개, 정기시장 9개소에 점포수는 2,398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재래시장의 민 점포율은 17.7%에 달하고 있고 등록된 재래시장의 매출은 2002년 15조원에서 2003년에는 13조 5천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시설현대화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6월 1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서민경제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몇 가지 원칙 하에 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인데 모든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시장을 선택하여 전문화된 시장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분업과 협업'의 원칙인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과 상인이 해야 할 일을 분리함과 동시에 각각의 임무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평가와 차별'의 원칙인데 추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체(subject),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 및 운영체제(Mechanism) 등 4가지를 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 본 ser-M 모델을 이용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란 인적요소인데 상인, 상인연합회 및 담당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상인들은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여 환불이나 반품 등의 서비스 개선을 해야 하며, 상인연합회는 이익단체라는 의식에서 더욱 성숙하여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혁신주체임을 인식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정책 시혜자의 의식에서 동반자 관계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환경이란 지역특성, 기본자원 등의 부존자원인데 제주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특산물들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택배의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연 5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외판매를 할 수 있는 재래시장 공동매장을 관광지에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족한 기본자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사업 외에 업종별 군집화, 깔끔한 전열 및 청결, 간판의 규격화 및 업종별 구분화 등으로 고객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자원이란 기술, 협력 등 창출자원인데 재래시장은 다른 유통업태보다 서비스능력, 상품기획 등에서 뒤떨어지므로 점포경영에 필요한 판매기법, 상거래절서, 상품진열 등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공동상표개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창고이용 등의 공동마케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운영체제란 주체, 환경, 자원 등을 결합시키는 능력인데 재래시장 관계자,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재래시장 발전기획단을 운영하여 카드 수수료운 조정, 장기 저리융자 지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등 재래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내 몇몇 재래시장은 제주지역의 인구 및 경제규모를 고려해 볼 때 상당히 큰 규모로써 지금은 경기침체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안문제 해결과 시장경영지원이 이루어지면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